

프랑스 공공건축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MIQCP*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프랑스의 MIQCP(Mission Interministerielle pour la Qualite des Constructions Publiques)는 1977년에 최초로 설립된 공공건축 전담지원 조직이다.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안의 타당성 검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을 한다.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발주처를 대신하여 현상설계공모를 대행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 프랑스의 MIQCP 사례는 좋은 참조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건축의 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설립된 MIQCP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성, 건물의 품격,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도시 경관 및 건축유산의 보존은 공공적 관심사다.” 이는 건축은 문화의 산물이며, 그 공공성의 가치가 부각돼야 함을 강조한 프랑스 건축법(Architecture Act)의 기본이념으로 결과로 1977년 총리 및 문화환경부 장관에 의해 건축법(Décret n°77-1167 Art1,2,4)이 선포됐으며, 이를 계기로 MIQCP가 설립됐다.

1977년에 설립된 MIQCP의 주요 협력부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소속 건축문화유산부(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patrimoine, DAPA)

총리 및 문화환경부 장관에 의해

선포된 법령(Décret n°77-1167)

최적의 비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격 향상을 실현하고 발주기관과 사업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역할을 구분해 명시하기 위한 법령으로,

MIQCP의 설립 및 기능관련 조항은 1·2·4에 포함

- Art.1 MIQCP는 공공을 위한 건물의 건축적 품질을 향상하고 장려하는 역할 수행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다.
- Art.2 MIQCP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공시설물, 국가 공공서 기관 및 집단과 연계해 사업추진과 정보수집의 업무를 보장한다.
- Art.4 MIQCP는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및 지방단체들의 조화 속에 유사한 성격의 임무, 역할을 수용한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실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직·간접적으로 정책 관련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와 프랑스 건축기관(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IFA)이다.

MIQCP는 설립 초기엔 건설산업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구사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다. 주로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법, 엔지니어와 건축가의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 건설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정과 방법, 공공계약 법규 및 정보 보급·확

* 본 원고는 2011~2012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2011·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산, 에너지 절약과 화재방지를 위한 지침서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의 조언 및 컨설팅 역할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수행했으나 공공시설의 발주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에는 그 기능이 축소돼 현상설계공모의 기획·관리를 전담해 지원하는 ‘Jury’ 제도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에 관한 지침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정보보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MIQCP의 조직구성 및 운영체제

MIQCP의 조직원 수는 설립 당시 모두 12명이었다. 기본적으로 국가 공인 건축가, 엔지니어, 법률 자문위원과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경영진에 해당하는 총장과 매니저급 인사는 이들 중에서 선발해 오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과정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건축 컨설턴트는 조직 운영 초기에 10~15인의 작은 규모로 구성됐으나 건축공모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총 49인에 이른다. 사업특성상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협조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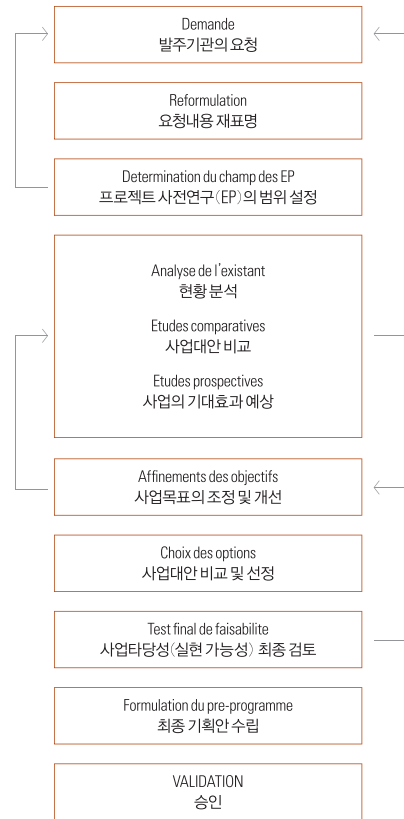
MIQCP의 총예산은 30만 유로(약 4억 7,000만 원)로, 문화·커뮤니케이션부로부터 간행물 및 잡지 발행과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20만 유로를 지원받고, 건축 컨설턴트 운영비용 10만 유로는 환경부(Ministère de l'Ecologie)로부터 지원받는다.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해

사업기획안에 대한 전문검토 지원

프랑스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기획단계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만큼 건축 기획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기획자(Programmiste)가 별도의 전문가로서 존재한다. 발주기관, 사업 총괄감독(PM), 프로그램 기획자가 상호 연계돼 사업기획안을 작성하면 발주처는 이에 대한 사업 적합성 검토를 위해 MIQCP에 검토를 의뢰한다. 그러면

MIQCP의 프로젝트 사전연구(Etudespre-operationnelles)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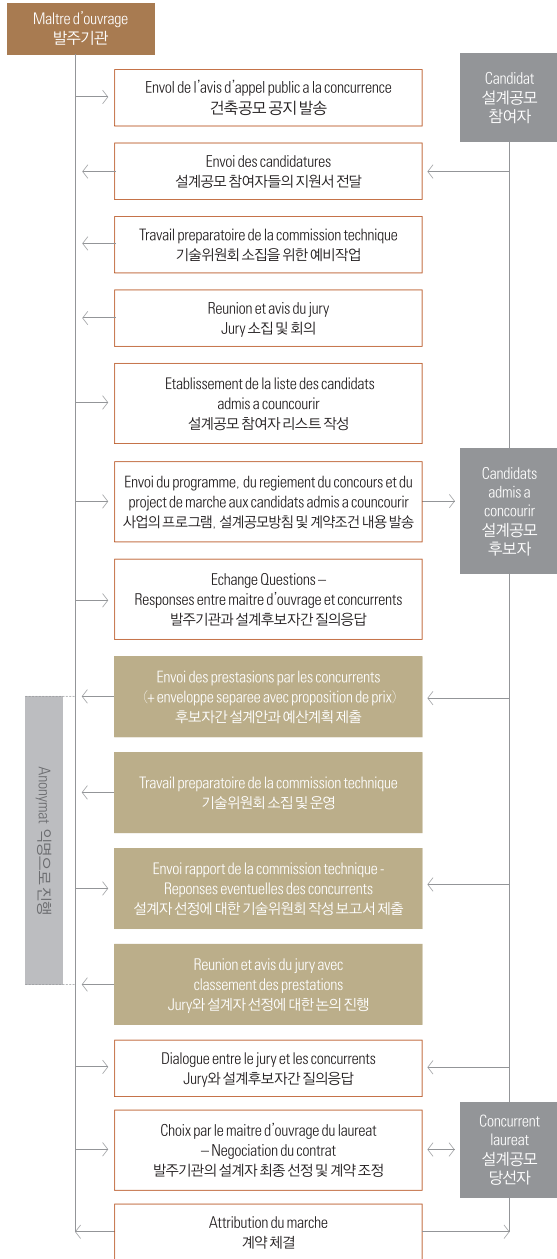


자료 : MIQCP, 'Rehabilitation des batiments publics dans le cadre de la loi MOP', 2010, p.15 내용 참조

MIQCP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목표, 총면적, 프로그램 기획, 추진일정 등이 계획된 기획안을 검토해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주요 쟁점 및 한계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 입각하여 사업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해 사업목표가 조정·개선되며, 이후 선정된 대안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기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따른 세부방침이 정해진다.

MIQCP의 일반 설계공모 운영 절차



자료 : MIQCP, 『Les marches publics de maitrise d'oeuvre』, 2008, p.49 내용 참조

공공건축 현상설계공모를 전담 지원하는 'Jury' 제도

MIQCP는 공공건축물 발주과정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상설계공모의 기획·관리를 전담해 지원하는 'Jur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 사회시설부(Directeur de Ministre d'equipement) 소속 건축 담당자,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건축가로 구성된 건축 컨설턴트가 개입해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자 선정, 설계안 평가, 조달계약 방식 조언, 시상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Jury' 제도는 크게 일반적 건축공모 운영방식과 PNS(Procedure Negociee Specifique) 운영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건축공모'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주처가 건축공모를 의뢰하면 MIQCP는 이에 대해 공모 지침과 함께 발주처를 대신해 공고문을 내고, 설계공모 참여자(설계자)의 지원서를 받아 발주처에 전달한다. 이후 기술위원회(La Commission technique*)가 소집되며 사업을 위한 예비작업에 착수한다.

'Jury'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발주처에게 보고하면, 발주처는 설계공모 후보자 명단 작성과 더불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공모방침 및 계약조건을 공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공모 참여자 간 질의응답 과정이 진행되며, MIQCP는 이러한 회의를 주관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위원회는 논의 과정이 완료되면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주처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에 대한 협상(Marchés de Définition, MdD) 및 체결을

* 기술위원회란 'Jury'에 의해 진행되는 작업들을 총괄·통합해 보고하고자 지명된 위원회를 말하며, 발주처에 의해 지명된 멤버로 구성되며 'Jury'의 구성원과 다른 외부 전문가(건축가, 경제 전문가, 프로그램 계획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Jury'의 작업을 준비하고, 후보 설계자들에 관한 자료와 요점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자 선별 과정의 직접적인 참여나 설계안 결정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건축공모의 공모 대상은 총 9만 유로(약 1억 4,000만 원, 세금제외) 이상의 사업이며, 중앙정부 시설의 경우 13만 3,000유로(약 2억 1,000만 원)이상의 사업, 지역시설의 경우 20만 6,000유로(약 3억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다만 보수·개축, 혁신적 기술 도입의 사업, 사회기반시설일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고 있다.

‘Jury’ 제도의 두 번째 운영방식인 PNS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건축공모처럼 발주처가 건축공모를 공지하고, MIQCP는 지원자(설계자)의 지원서를 받아 발주처에 발송한다. 이때 PNS 절차에서는 기술위원회가 따로 소집되지 않으며, 발주처에서 협상대상으로 가능한 지원자(공모 참여자) 명단과 함께 프로그램, 총예산, 계약조건을 결정해 지원자에게 내용을 발송해 알린다. 이후 지원자와 발주처 간의 토론을 통한 첫 협상이 진행되며, 지원자에 의해 제안된 설계안이 발주처로 발송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와 발주처 간의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을 통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설계자가 채택되면 계약조건을 구체화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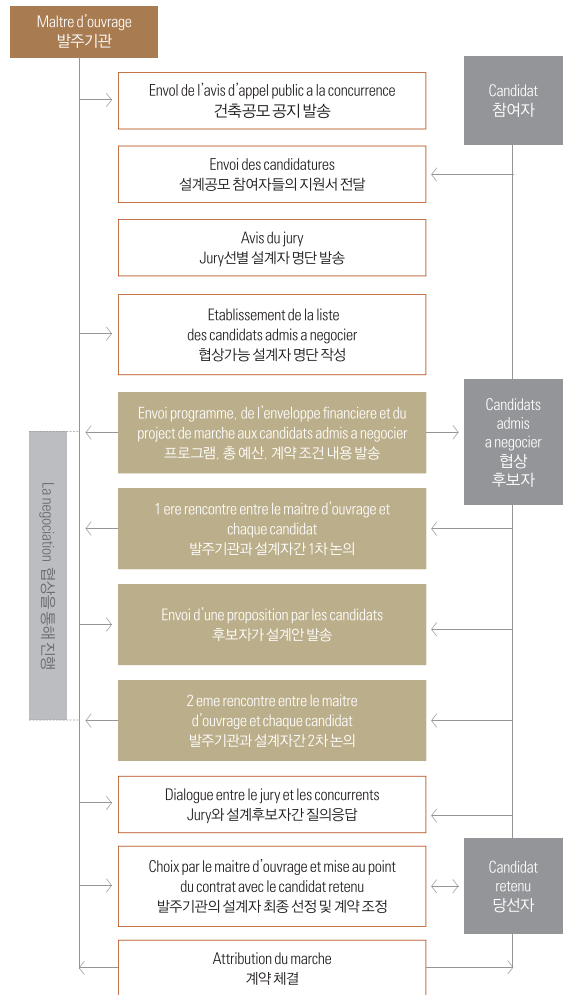
정책 시사점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디자인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문제와 업무수행의 전문성 결여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에서도 과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던 사항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련 정책연구와 조성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공공건축 조성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디자인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담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2013년 4월)됨에 따라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이나 조직운영에 대해 MIQCP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단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MIQCP는 공공건축 사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MIQCP의 PNS 운영 절차



자료 : MIQCP, 「Les marches publics de maitrise d'oeuvre」, 2008, p.51 내용 참조

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보장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투입 여건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MIQCP는 한정된 운영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공공건축의 다양한 연구자원을 기반으로 공공사업 기획 및 설계과정 전반에 대한 디자인 자문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과정 전반의 디자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직 운영상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MIQCP가 핵심적으로 선택한 전략은 바로 좋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처를 대신해 현상설계공모 과정을 운영·지원하는 것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확보 차원에서 현상설계공모를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지자체에서 형식과 절차가 까다로운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데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에서 MIQCP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운동을 들 수 있다. MIQCP에서 공공건축사업을 컨설팅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법률 등 다양한 사회분야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타 분야의 협조를 받고 있다. MIQCP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소수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특히 사업 초기의 기획단계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기획안을 검토하는 부분은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관련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고 있다. 공공건축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또는 우수 사례집 발간을 비롯해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이나 법규 개정, 제도운영 정보의 보급·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 2 이상민, 김진욱, 이민우,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 3 프랑스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s, 「The Attribution of Public Contracts to Project Consultants in Europe」, 2002
- 4 「Les marches publics de maitrise d'oeuvre」, MIQCP, 2008
- 5 「Rehabilitation des batiments publics dans le cadre de la loi MOP」, MIQCP, 2010
- 6 「The Attribution of Public Contracts to Project Consultants in Europe」, MIQCP, 2002
- 7 프랑스 MIQCP www.archi.fr/MIQCP